

‘근대화’ 개념의 전파 중간발표

손열

6-10-17

1. 냉전, 정체성, 근대화

- 미소 양국의 경쟁은 정체성의 경쟁임(Jervis). 여기서 정체성은 삶의 방식, 무엇이 소망스런 삶인가를 정의하는 것, 따라서 사회체제적 경쟁; 또한 물질자원의 차원이라기보다 역사변화 (vectors of historical change)의 경쟁(i.e. 복지, 경제안보, 자주, 독립..),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조정하는 경쟁, struggle for hegemony = struggle for **mastering change**.

- 핵심개념은 근대화, 그러나 미소간 서로 다른 근대화 개념; 예컨대, Barrington Moore Jr.의 근대로 가는 서로 다른 길; 어떤 근대화를 추구해야 하는가?; 보편 범주로서 근대화 (Westad: 미국은 민주주의, 개인주의, 자본주의로 전환; 소련은 프롤레타리아, 계급갈등, 개인의 변환 등 사회주의 실험장)

- 기존연구: 이완범, 박태균, 마상운(박정희 시기 미국의 한국개입과 근대화론); 정일준(근대화론의 한국전파), 냉전의 관학협동체 혹은 지식/권력에 관한 구미학계의 여러 연구들.

- 박정희의 ‘조국근대화’론 이면에 한국사회에서 벌어진 근대화 개념 논쟁은? “근대화는 개념의 성질상 문제되는 시기와 고장을 떠날 수는 없다”고 한다면, 어떤 근대화 ‘상’을 모색하였는가? 일본(일본근대화론)은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2. 번역어로서 근대화

- 근대는 modern의 번역어; 19세기 후반, 일본은 ‘가까운 시대,’ ‘요즘,’ ‘최근’의 의미를 가진 ‘근대’란 단어를 modern의 번역어로 사용함. (広辭苑)

- Oxford Dictionary의 modern: 6세기 라틴어 modernus에서 온 말로 ‘지금’이라는 뜻. ① ‘지금 있는,’ ‘먼 과거와 구별하여 현재에 가까운 시기의, 혹은 현재에 속하는,’ ② 르네상스 이후 중세와 구별되는 시대.

- 번역어로 쓰기 이전의 ‘근대’의 의미는 modern의 의미와 유사함. 근대란 번역어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1890년대, 그러나 1950년대 이후 ‘근세’를 대신해 시대구분의 정식 용어로서 지위를 차지함 (야나부 아키라 2011); 19세기말 당시 근대의 의미는 開化, 開明 혹은 洋務; 혹은 부국강병(산업화, 군사화); 즉, 문명 vs. 야만의 이분법과 연결됨.

○ ‘근대화’는 미국의 근대화이론 수입하면서 본격적으로 회자됨: “미국화(Americanization)”

- 근대화 이론은 진화론적 사회변동론과 계몽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음.

- dichotomous approach: 전통과 근대의 이분법, 전통과 근대의 속성을 이념형으로 설정하고 사회의 변화를 전통에서 근대로의 진화(evolution)로 개념화.
- Modernization is a transition, or a series of transitions from primitive, subsistence economies to technology-intensive, industrialized economies; from subject to participant political cultures; from closed, ascriptive status systems to open, achievement-oriented systems; from extended to nuclear kinship units; from religious to secular ideologies; from gemeinschaft to gesellschaft (Lerner, 1958: 43-75; Black, 1966: 9-26; Eisenstadt, 1966: 1-19; Smelser, 1967: 718; and Huntington, 1968a: 32-5).
- 특수주의에서 보편주의로의 변화; 귀속가치에서 업적가치로; 서구사회에서 근대의 출현은 기존 귀속 문화의 한계를 돌파하여 가치일반화에 성공하였기 때문(Parsons)
- 근대화는 국가 수준에서 경제, 사회, 정치 등 포괄하는 다면적 과정
Huntington (1968): “a multifaceted process involving changes in all areas of human thought and activity.”
“transformations of one institutional sphere tend to produce complementary transformations in others” (for a forceful statement asserting the systemic character of modernization, Lerner, 1958).
- 어느 한 부분의 변화(기술의 도입)에 따른 충격이 여타 부문으로 확산되어 부문간 상호보완성 가지며, 균형을 이루며 진화하는 과정: 균형, 항상성, 안정성이 건강한 사회체의 규범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 실증주의, 행태주의

3. 냉전어로서 근대화: 지식/권력 nexus

- 근대화 개념 및 이론은 미국의 제3세계 통치와 긴밀히 연결; 즉, 제3세계에서 미소의 전략적 경쟁과 관련된 개념, 이론체계
- 신생국에게 비공산주의적 사회발전의 경로 제시 목표
- 역사발전은 연속적, 단계적, 비갈등적 진화의 과정(<-> 단절적, 혁명적, 갈등적 과정) 강조.
- counterrevolution
- 미국이 신생국의 경제, 사회, 정치변동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 신생국의 자본주의 발전대강 마련 -> 근대화이론
- 지식과 권력의 결합
- 대학, 연구기관, 정부 연계; 대표적 군산학 복합체로서 MIT의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Project Troy”(Nils Gilman, *Mandarins of the Future*); W. W. Rostow,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A Non-Communist Manifesto* (1960)

○ Edwin Reischauer:

- The people in Asia are asking for an ideology. We have in many ways failed to give it to them. There is a crying need for people to have our ideology. We aren't in the habit of giving it. We have the ideology but we aren't presenting it to other people. (Oct 1949)

- Asians realize that they are going through a period of cataclysmic change, and the more thoughtful among them keep groping for the meaning of this painful process. They want a theory of history...

- While we strengthened the arms of the Chinese and attempted to fill their bellies, the communists won their minds, and of course along with their minds got their arms and bodies too..we appear to many Asians to be relying primarily on force and the communists on arguments..the choice between democracy and communism does not rest on hard personal experience but belongs to the realm of theory.

- (라이샤워는 미국 모델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 주저함)

To the extent that we identify democracy exclusively with the United States, we are actually undermining our cause in Asia, for then we make democracy seem hopelessly unattainable.

- (자본주의 개념 사용에도 주의 기울여야)

[free enterprise] implies freedom from the stultifying restrictions of the bureaucratic superstate...not unnaturally we emphasize the blessings of "individualism" in our war with those political systems that enslave the faceless masses to the will of a few rulers. But both "free enterprise" and "individualism" suggest entirely different concepts to most Asians. These terms raise before their eyes the picture of the ruthless monopolist, the economic gouger, the foreign or native exploiter of the economic wills of colonial Asia... They are the symbols of the disregard of all social conscience.

-(민간인/학자의 역할 강조)

the private citizen [scholar] has the great advantage in the ear of ideas of being in large part free of the natural suspicion with which any people insulates representatives of a foreign government.

The real point is the problem of the special place of the scholarly classes in the Far East, particularly in the area of China, Korea and Japan..If we exploit the special position of the scholar, it would seem to me that propaganda work, information aimed at them, would be the most effective kind. It might be advisable

to put American professors in every university...

4. 일본: 근대화이론과 Japan as model for late modernizers.

○ Conference on Modern Japan (1958): 미국의 소비에트 연구와 동시에 이루어진 프로젝트, John Hall 주도로, Ford Foundation 후원.

○ 제1회 회의는 하코네 일본 근대화 컨퍼런스(1960), 후속 5차 회의.

- John Hall, “근대화 개념”: (1) 개인이 환경에 대해 비종교적, 과학적으로 대응, (2) 인구의 도시집중, (3) 무생물적 에너지의 고도의 사용(기계화), 상품의 광범위한 유통, 서비스 기관 발달, (4) 사회구성원의 광범위한 공간적 상호작용, 경제적, 정치적 과정에 참여, (5) 광범위한 매스컴 네트워크, (6) 정부, 실업, 공업 등 대규모 사회시설의 존재, 관료제도 정비, (7) 국가의 통일, 국제관계 증대.

- 근대화는 ‘전체적, 유기적 과정’으로서 특정 국면의 변동이 여타 부문에 파급되면서 이루어지는 전체적 복합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적 근대화로 분류.

- 근대화의 개시는 서구가 선두에 서고, 여타 사회들은 서구의 직간접적 충격에 의해 근대화를 경험함. 따라서 일본의 근대화 연구는 ‘필연적으로 외부적 힘과 고유의 힘 사이의 상호간섭의 연구’라 할 수 있음.

○ “Reischauer Offensive”(1961~66)

- 일본모델 = 점진적, 비혁명적 자본주의 발전모델

- E. H. Norman, 일본 자본주의논쟁 등 배제

- 메이지의 봉건주의적 유산, 억압, 자민족중심주의 등을 반영하는 전전 일본의 자유의 제한, unbalanced growth, 불평등, 군국주의, 일반대중의 착취, 이런 일본은 사상되고 대신 gradualism, community-oriented, entrepreneurship, diplomatic realism, bourgeois parliamentary democracy 등이 강조됨. (John Dower, “E. H. Norman, Japan and the Uses of History,” Selected Writings of E.H. Norman)

- 라이샤워의 일본(제1차대전 이래): “democracy, however imperfectly, was becoming the dominant force in Japanese politics...the carefully controlled revolution of the Meiji period was developing into a runaway liberal movement of the urban middle classes.

- 이런 흐름은 군부에 의한 식민지 팽창으로 좌절 (“a sudden reversal of the dominant trends of the preceding decades”), 이는 점진적 발전궤적에서 일시적 탈선, “aberration”

- “feudal remnants” -> “traditional,” “early modern” (일본의 성공 요인); 마르크스주의 배경

- 일본의 급속한 근대화는 기적적인 것이 아니라 봉건제를 겪으면서 신중한 경험주의에 근거한 내재적 논리

- 메이지 유신, 1920년대, 1930년대 새로운 해석.

- Marius Jansen: 일본 근대화의 세가지 특징: 진보에 대한 믿음, 합리성, 산업화
- 근대 전쟁에 주목하는 경향 탈피하여 에도후기부터 메이지 후기까지의 “change with lightening speed,” 메이지 과두지도층의 “a rather inspired, imaginative variety,” 일본 근대사의 균형된 시각 강조.

- 일본측의 비판

- 마루야마 마사오, 도오야마 시게키 등은 하코네 회의에서 Hall 등의 개념화에 반대. 마루야마는 ‘근대화 과정을 세계사적 보편으로 놓고 정태적 기준에 의한 객관적 유형화를 통해서 계량분석하는 방식’ 반대하면서 ‘전전 일본과 독일의 근대가 의미하는 바’에 관심을 두고 개인의 가치체계 변화에 주목해야한다(金原左門, 『日本近代化論の歴史像』 1968, 28).

- 이는 전후일본 지성계의 “민주적 개혁”론(근대화 = 민주화): 민주적 정치주체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서구(특히 영국이 모델)와 달리, 근대적, 민주적 정치주체가 결집되지 못한 속에서 외부[미군정]로부터 구질서의 해체와 경제/정치적 재건을 강제받는 상황, 개인의 가치체계 변화에 분석의 초점.

- 근대화란 봉건제 이후 단계에서 정신혁명을 포함한 전체적/혁명적 변화를 의미, 인간유형 및 에토스 변환, 이상주의적 가치 지향; 이에 비해 미국의 근대화 개념은 점진적, 연속적, 단계적 변화, 외면적, 경제, 사회적 변화

- 일본정치가 정치적 대결의 시대로부터 경제성장의 시대로 이행, 지적 관심의 초점도 새로운 인간유형을 생성하는 정신혁명보다는 고도성장의 긍정적 평가, 현상변경 보다는 현재 번영과 기득권 유지; 경제성장에 대한 자신감에 따라 미국의 근대화론 타당성을 긍정하는 기초가 되고, 민족적 자긍심의 증대와 연결됨 (石田雄, 社會科學再考 1995, 108).

- 그러나 196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미국의 변화 즉, 베트남 반전과 대학투쟁, 히피문화, 탈실증주의, 탈행태주의 혁명 주장; 이와 함께 일본내 근대화이론에 대한 의문 재부상; 공해문제, 반전운동, 대학투쟁, 성장위주 경제노선에 대한 비판, 근대화 졸업과 서구의 상대화.

5. 한국의 근대화 수용

- 일본의 경우, 근대화이론이 점진적이고 비갈등적 자본주의모델을 만드는 것이었다면 한국의 경우는 냉전의 최첨단에 놓인 제3세계 탈식민지 신생국의 nation building을 실천하는 과제.

- 미국은 군사원조와 경제원조를 결합하여 냉전적 목표 추구

- J. F. Kennedy 의회연설 (1959.2.19.) “미국의 전략과 안보, 동맹관계에 대해 어떠한 군사적 도전보다 더 큰 영향을 주며 세계의 양상을 변모시키고 있는 것은 경제적 간극 즉, 선진국

과 후진국,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의 간극이라 지적하고, 한국의 경우, 휴전이 성립된 후 미국의 위협은 군사도발이 아니라 소련의 경제공세. 소련이 저개발국에 원조와 통상으로 침투를 시작,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미국이 가난한 국가들에 희망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소련과 중공이 경제적 간극을 메우는 데 첩경인 것처럼 후진국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불행한 사실.”

○ Rostow 등 근대화이론가: 발전 혹은 경제개발은 국가종합개발/nation building의 차원
- 가난에서 벗어나는 일이 핵심이나 이를 단순한 경제문제로 보기에에는 복잡한 과정, 경제외적 요소가 대단히 중요함. 교육, 사회정의, 행정능력, 국가계획에 대한 유효한 이론 필요 (Galbraith)

- “미국의 원조는 비폭력적으로 급속한 변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진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우리식 민주사회가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는 세계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이라는 정의로부터 직접 도출된다...외부로부터 경제원조는 정치적인 성숙으로 옮겨가고자 하는 해당사회 스스로의 노력에 기여할 수 있을 때 효과적일 수 있다.”

- 이것은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 조건이 경제근대화와 사회근대화 과정에서 충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첫째는 자기 사회의 미래를 내다보며 도전하고 건설하려는 국민, 둘째 사회적 열망, 셋째 젊고 활기찬 지도력, 넷째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기회를 증가해야 하며, 다섯째 서구식으로 교육받은 도시 계급과 농촌간의 간극 축소해야. 여섯째 국민이 국가의 국민이자 공동체의 개인으로서 확신을 가짐으로써 스스로 노력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일.

○ 5.16과 경제개발계획은 미국 근대화이론과 부합
- 미국의 고민은 한국정부의 부패, 억압, 학생데모, 경제침체, 통일론 고조 등 속에서 사회주의가 어필할 가능성 우려,
- 근대화이론을 통해 자유, 자본주의적 근대화 추진

○ 미국의 ‘한국 근대화’: 수용의 two routes:

① 정부수준: 박정희 집권, 미국의 개입, 로스토헤 정책처방, 제1차 경제개발계획에 관한 이완법, 박태균, 마상윤 기존 연구

② 민간수준: 정일준, 정용욱 연구

- 미국무부: 한국사회에서 지식인의 역할 평가: “한국에서는 지식인이 대체로 정권에 협력하기보다는 정권에 저항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미국은 한국에] 점진적 사회변동과정을 겪도록 고무해야 하며...한국지식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정문연 현대사연구소편, 5.16과 박정희 정부의 성립, 정일준 재인용)

- “한국의 대학교수가 미국의 국익에 맞도록 현재와 장래의 한국지도자의 사고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한국인 상당수의 정치적 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 주한미공보원 활동:

- 로스토우의 경제성장단계론 번역(1961), Max Millikan 신생국가론(1961), 로스토우 서울대 강연(1964).
- 1965년부터 '한국의 근대화' 주간 뉴스프로그램 제작, 경제개발, 국가계획, 교육발전, 사회변동, 농촌발전 등 주제 취급, 10만명에 이르는 한국인 시청.

○ Ford Foundation 활동

- 고대 아세아문제연구소에 62-67년간 70만불 지원
- 아연 심포지엄: "아시아에서 근대화문제"(1965)

○ 일본의 경우, Reischauer, Hall, Jansen, Dore, Lockwood, Scalapino 등 미국대학의 우수연구자가 포진해 있는 반면, 한국은 1959년 취직한 Edward Wagner가 유일함. 따라서 한국사례의 경우 일본, 중국 연구자들이 피상적으로 관찰한 정도이어서 한국에 전파된 근대화이론은 그야말로 추상적인 이론체계와 분석도구 소개 수준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음. 그런만큼 일본의 경우와 달리 미국학자와의 치열한 토론이 부재하였고(?), 수입이론의 현실적용은 한국학자의 몫이 되었음.

○ 동주, 정치명분으로서 근대화(신동아 1965. 8)

- 개념의 변천: 19세기 후반 서구 군사화, 산업화 → 20세기 초 유럽 문물에 대한 가치부여 "新思潮, 新體制" 채택 → 1950년대 중반 이후 "경제건설이 곧 근대화"

- 근대화는 서양화; "근대화의 현실은 그것이 사회태도로 나타나고 또 구체적 모델 설정을 그 사회가 가장 영향받는 나라에 두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모델 국의 정치가치체계, 법제, 정치제제 등을 한 셋트로서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며, 적어도 가치체계를 그 중에서 한 부분 한 부분을 골라서 받아들이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것은 強國政治가 일찍이 허용하는 일도 드물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델의 성숙도를 그대로 도입할 도리는 없다. 그것이 모델에 대한 서투른 적응인 한 그 사회가 택한 모델에의 模倣이 아니기 어렵다."(286)

- "신사조, 신체제의 채택이라는 근대화는 구미정치양식의 기준에서 볼 때 新出의 어색한 정치가 아닐 수 없으며, 또 이 까닭에 아시아 정치의 이러한 의미의 근대화는 일견 구미정치 질서의 변두리에 위치하는 것이 되어, 마치 唐代 일본이 唐法制의 도입과 중국화를 감행하면서도 한편 유교문화권의 변방에 위치하였던 까닭으로 토착정치의 전통을 잃지 않았던 것에 방불한 느낌이 있다. 이점에서 볼 때 변경적 위치는 정통에 비하여 혼탁하고, 중앙에 비하면 변경이 된다. 그러나 한편 다시 변모하는 경우에는 舊國제정치권에서 쉽사리 이탈할 수 있는 묘미가 있다."(287)

- "신사조 근대화는 구미질서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에서 출발하여 급기야 정치혁신운동에까지 미치는 대의명분이 되었다...일본이 明治 근대화 과정에서 立憲 法治主義를 이미 단순한 가치가 아닌 정치적 명분으로 채택하였던 반면...신생아시아[한국 포함]에서 근대화는 이른바 민주화라는 정치적 명분을 급작히 근대화의 소산으로 맞게 되었다... 정치적 명분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왕좌는 미동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대의명분으로는 1961년 군사혁명

후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정치지도자도 끊임없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형편이다.(288)

- “건국기를 마친 신생국이 근대화를 새삼 ‘경제건설’의 면에서 동일시하는 경향의 발생은 국내적으로 대중의 욕구 불만이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하는 일면이 있다...경제향상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근대화는 급속히 정치적 대의명분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것이 선거에 의한 지도자건 혹은 군사혁명에 의한 지도자이건 간에 모든 정치지도자는 근대화를 ‘경제건설’이라는 좁은 면에서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러 가지의 계획경제 案의 작용 따라 근대화라는 정치명분은 명백히 ‘공업화, 경제건설’에 집중한다.(290)

- “마치 근대화의 前期의 소산이었던 정치이념 ‘민주화’가 적어도 근대화라는 관련에 있어서는 후퇴를 시작하고, 새로이 경제건설이라는 이미지 안래 근대화 의식이 사회태도의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같이 보인다(291).

- “이와 때를 같이하여 구미의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이 성행하고, 모델·이미지가 점차로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국내정치면에서 있어서의 새로운 요인의 증가와 더불어 주목거리가 아닐 수 없다. 혹시 이것은 단순한 근대화개념의 변모에 비친 정치변화의 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一步를 나아가 구미정치의 변경에 속하고 있는 아시아 신생정치가 변경에서나마 이탈하는 징조라고 판단될 때는 사태는 사뭇 중대화할 것이다. 그러나 아마 이러한 판단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 (292)

○ 한국근대화의 기본문제 (1968.4)

① 의도: 유럽사에서 추출한 유형개념으로서 ‘고전적 근대화’를 넘어서, “근대화는 개념의 성질상 문제되는 시기와 고장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대화라는 일반개념을 정립하려는 분석적 방법도 미타고 여기지 않습니다.”(302)

② 누가?: “지도층은 항상 현실적으로 국민의 공감과 에너지를 용솨음치게 함으로써 권력의 행사일지라도 국민의 환호속에 감추어 놓을 수 있는 층...이 나오지 않으면 千萬言을 써서 근대화를 부르짖어도 근대화는 허탕입니다.”(304); “洋물결이 치는 대로, 신식 군대의 위압이 시키는 대로 그리고 외국자본이 밀어닥치는 대로 이것을 계기삼아 해외의 문물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근대화가 아니라 식민지화입니다...이 점에서 지도층, 주도세력의 자세의 문제가 나옵니다.”(305)...“선진국의 예는 그 지방색, 전통에서 금지와 국민의 공감을 찾고 근대화에서 국제적 경쟁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요컨대 근대화란 특정한 시대상황에서 자기 고장에의 애정과 금지있는 전통의 생명감에서 몇가지 국제가치기준을 추구함으로써 국제대열에 낀다는 것”(306)

③ 무엇 때문에?: 빈곤극복, 세계사의 주류인 국민국가(nation-state) 성취, 내쇼날리즘 즉, “공감과 합의의 현실간에서 우려나온 법질서·정치제도라야 된다는 국민국가관이 오늘의 모랄임.” “복지주의 위에 선 풍요·풍족,”

④ 무엇을?: “근대화에의 자세는 ‘우리’에 대한 자긍과 전통이라는 자기의 생의 줄기에서 솟

아나오는 자신에서 찾아야”(312), “국제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생활력,” “민족국가로서 통일,” “민주주의.”

○ “아시아에서 근대화문제”(1965. 6.28-7.7): 제5부 총 62편 논문 발표. 한국판 하코네 회의?

- Lucian Pye, Marion Levy, Robert Scalapino, Gregory Henderson, James Morley, Marius Jansen, Ronald Dore, Itagaki Yoichi, Hayashi Kentaro, Herbert Passin, Glenn Paige.

- 김태길, 고병익, 이광린, 이선근, 이용희, 손제석, 차기벽, 함병춘, 김하룡, 남덕우, 이만갑, 이해영, 김규환 등.

- 한국 학계는 근대화이론을 통해 자신의 문제와 목표를 설정하였는가?

- 근대화 이론의 취사선택?

- 근대화이론의 핵심 가정들을 수용하였는가? 예컨대, 근대화는 서양화인가? 전통과 근대의 이분법은 유효한가? 등

- 한국의 어떤 전통가치가 근대화에 기능적인가? (동주의 질문, 1968 보론)

- 한일간 근대화론 수용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일본의 역할?

- 60년대 후반 이후 근대화 개념은?